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국어 교사들이 논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교사 A: 많은 선생님들이 쓰기 수업 시간에 글의 구조, 서술 및 표현 방식 등과 관련된 쓰기 규범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쓰기 규범이 창의적 글쓰기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작문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사 B: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필자에게는 규범에 맞는 글쓰기 학습이 먼저고, 창의적 글쓰기는 이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 작문 이론과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공감합니다. 신비평과 전통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 작문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쓰기 규범과 원리의 습득을 중시합니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해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한 쓰기 규범의 내면화와 전수를 중요한 작문 교육 원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사 C: 창의적 글쓰기는 대개 기존의 글쓰기 규범을 벗어난 지점에서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가 독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자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독자의 새로운 심미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기대를 품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D: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이 아닐까요?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지금의 글쓰기 규범이 잘 담아낼 수 있다면, 현행 규범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담아낼 수 없고, 독자 역시 변화에 대한 욕망이 충만하다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 A: 세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쓰기 규범의 준수와 창의적 글쓰기는 반드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 독자의 요구, 주제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생각 등과 같은 (㉡)을/를 고려하고 이를 글쓰기에 반영하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와/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쓰기 규범의 준수 여부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는 교사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소나기」의 일부이다. (가)의 괄호 안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되 ㉠은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2점]

(가)

교사 A: 요즘, 소설의 시점에 대해 수업하는데 현대 소설에서는 기존의 시점 유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사 B: 「소나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시점의 유형을 감안해서 대답해 주기는 하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교사 A: 특히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대목이 아닌데도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물이 직접 전해 주는 것처럼 드러난 부분이 눈에 띄어요.

교사 B: 맞아요. 가령 (나)에서 (㉠) 같은 부분은 인물의 생각을 드러낸 방식이 독백에 가까워서 작은따옴표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서술자의 목소리보다 인물의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시점의 유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교사 A: 그도 그럴 것이, 시점에 관한 개념으로 따지자면 (나)의 경우,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도 (㉡)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전하여 서사의 제시 양상을 조율하고 있는 점이 엿보여요. (나)에서 ‘중략’ 이후를 보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녀’에 얽힌 사연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서이지만 마치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경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요.

교사 B: 서술자의 지위나 위치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서술의 양상이 일정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를 서술 상황의 불확정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더군요.

(나)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갯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 (중략) ...

남뿔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구…….”
 “어찌든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
 봤다드군. 지금 같에서는 윤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루 입혀서 묻어 달라구…….”

- 황순원, 「소나기」 -

(나)

청중이 듣고 이해하기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논의가 바뀌면 사고 연결에 무리가 생기므로 청자가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앞의 내용 정리하기, 뒤의 내용 안내하기 등의 기능을 가진 내용 연결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략) ...

연설의 결론은 ‘종료 신호’, ‘요점 재강조’, ‘결언’으로 구성된다. 결언은 연설의 결론 중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지나간 요점을 재강조할 필요는 없고, 청중에게 연설 전체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도록 결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결언에서는 유명한 말, 고사성어, 문학 작품, 유머 등을 인용하기,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기,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연설을 맺기 등으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

- <작성 방법>
- (나)의 내용 연결 표현 중 쌍방향 의사소통 효과를 유발하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의 ㉠에 사용된 결언 방법을 쓰고,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3. (가)는 강연의 결론 부분이고, (나)는 연설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에 적용된 연설의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건, 이 시대의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탐닉할 때 진면목을 보여 줍니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 부패, 부정, 무질서 등 모든 악습을 일소하고 쇄신 하려면 아니 쇄신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청춘을 누리는 젊음에 있습니다.

... (중략) ...

우리에게 땅도, 돈도, 자연도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의지할 근본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질’입니다. 청춘에 사는 ‘젊은이의 질’에 있습니다.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략) ...

우리의 심장인, 우리의 장래를 떠맡은 청춘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여성을 사랑해야 되겠고, 남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민족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십시오. 운명 공동체인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리란 생각을 한다면, 나 하나 잘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내 젊을 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을, 다 늙어 죽어 가며 이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전해 주니 위대한 민족 사회를 위해 살아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당부를 하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 여러분! 청춘 중의 위대한 청춘, 건실한 청춘, 협동심을 갖춘 청춘, 절도 있는 청춘, 부지런한 청춘, 함께 살며 번영하길 원하는 청춘, 세계에서 제일가는 청춘 중의 청춘이 돼라!

- 이태영 변호사의 ‘언어교양대학’ 강연 중(1974) -

4. (가)는 '자발적 독서' 수업 계획안이고, (나)는 '자발적 독서' 관련 안내 자료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의 개선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자발적 독서' 수업 계획안

차시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1	수업 안내	○ 수업의 전체 진행 과정 소개 ○ 학생들의 역할 및 수행 과제 안내
2	도서 선정	○ 학년 수준에 맞는 도서 목록 제공 ○ 학교에서 정한 '이 달의 책' 한 권을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
3	책 읽기	○ 도서관에서 책 읽기
4	읽기 활동	○ 문단별 주제 및 세부 내용 파악하기 ○ 문단 간 연결 관계 파악하기 ○ 글 전체 내용 요약하기
5	생각 나누기	○ 읽은 책 내용 중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하기 ○ 각 모듈별로 이야기한 내용 발표하기
6	글쓰기	○ 이야기한 주제로 글쓰기
7	정리 하기	○ 자신이 쓴 글 발표하기 ○ 자신의 '자발적 독서' 과정 점검하기

(나) '자발적 독서' 관련 안내 자료

자발적 독서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발적 독서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기 선택 독서와 거시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 선택 독서는 '자율성'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독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실제 독서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호기심, 취향, 관심사 등과 관련하여 내재적 동기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동기의 발현과 충족의 지속적 누적은 학생 독자의 자발적 독서 경향을 강화한다. [A]

한편 자발적 독서의 지도는 미시적 독서 방법이 아닌 거시적 독서 측면에서의 계획과 실천을 강조한다. 거시적 독서에서는 글에 대한 세부적 이해나 사실적 이해보다는 확산적 이해를 강조한다. 즉,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글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내면화하고 누리는 활동 등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 독서 방법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독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B]

<작성 방법>

- [A]에 근거하여 2차시 수업의 문제점을 2가지 서술할 것.
- [B]에 근거하여 4차시 수업의 보완점을 2가지 서술할 것.

5. 다음은 「누항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어리고 우활(迂闊)홀산 이 니 우히 더니 업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김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셉히 되야
 셔흙 밥 닷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에 뵈 빈 석일 썬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움길넌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하다
 가을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뵈엿거든 병(瓶)이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호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분의망신(奮義忘身)호야 죽어야 말너 너겨
 우탁우낭(于藁于囊)의 줌뽀이 모와 너코
 병과오재(兵戈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호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호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릴노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 -

<보 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친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정치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났다. 박인로, 정훈 등과 같은 작가들도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데 이들의 가사에도 변화하는 시대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방의 한미한 사(士) 계층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물적 기반이 미약하여 스스로 농사일에 종사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도 했다.

<작성 방법>

-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에게 삶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된 사건과 이후 변화된 사회적 처지를 알려 주는 시어를 작품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 작품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그가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양립적인 의식을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6. (나)는 ‘시의 시상 전개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른 수업 중 학생과 교사 간 대화의 일부이다. (가), (나)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땀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

(나)

학생: 선생님, 시는 시상의 전개 양상이 시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둘의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사: 「벼」를 예로 들어 볼까요? 모두 4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1연의 ‘저를 맡긴다’, 2연의 ‘소리 없이 떠나간다’, 3연의 ‘노여움을 덮는다’ 등에서 각 연의 시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연에는 ㉠ 형식상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 시상 전개의 단조로움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셋째 연까지 제시된 ‘벼’에 관련된 시상이 4연에 모이는 점을 볼 수 있어요. 1~3연의 시상은 4연의 (㉡), (㉢), (㉣)(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면서, ‘벼’의 속성과 관련하여 성찰한 삶의 태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작성 방법>

- (나)의 ㉠에 해당하는 예를 2가지 찾아, 형식상 변화를 서술할 것.
- (나)의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쓰고, ‘벼’의 속성과 관련하여 성찰한 삶의 태도에 대해 서술할 것.

7.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의 (1)~(4)를 분석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문장의 형성에서 동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동사에 따라 문장 형성상의 특성이 다르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형성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형성한다. 이를 각각 자동문, 타동문이라 한다. 자동사는 본래부터 자동사인 것과 타동사에 피동 접사가 결합하여 자동사가 된 것이 있다. 타동사도 본래부터 타동사인 것과 자동사, 형용사 및 타동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하여 타동사가 된 것이 있다. 한편, 동사 가운데는 본래부터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가 있다.

<자 료>

- a. 태극기가 바람에 필력이다.
b. 영미가 태극기를 필력이다.
- a. 아이는 병원에서 열이 금방 내렸다.
b. 병원에서 아이의 열을 금방 내렸다.
- a. 손님이 사랑방에 들었다.
b. 강아지가 앞발을 번쩍 들었다.
- a. 나는 밤중에는 책이 잘 안 읽힌다.
b. 엄마가 밤중에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작성 방법>

- (1)과 (2)의 동사들의 문장 형성상의 공통점을 설명할 것.
- (3), (4)의 각 동사들의 문장 형성상의 특성을 설명할 것(단, a, b의 동사들의 특성을 각각 설명할 것).

8. <자료>에서 ㉠~㉣은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자료>의 ㉠~㉣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별개의 형태소인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다른 형태가 동일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 ‘엇던 사름고<杜詩 8: 28b>’에서 ‘사름고’의 보조사 ‘고’와, ‘고들 보고 므스미 便安호야<月釋 12: 28b>’에서 ‘보고’의 어말 어미 ‘-고’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호는다<杜詩 6: 5a>’의 어말 어미 ‘-다’와, ‘보논 사르미라<月釋 2: 46a>’의 어말 어미 ‘-라’를 들 수 있다.

—<자 료>—

- 俱夷 묻즈벌샤디 ㉠ **므스게** 쓰시리 <月釋 1: 10b>
- 한 거슬 호나히 ㉡ **드외에** 밍ㄴ르시며 <月釋 4: 40b>
- 놀개 두위터 明月入 ㉢ **들에**에 느려 <杜詩 24: 24a>

—<작성 방법>—

- ㉠~㉣을 각각 형태소 분석할 것(단, 교체가 일어난 것은 교체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로 분석할 것).
- ㉠~㉣ 중 품사가 바뀐 것을 찾아 바뀐 후의 품사 이름을 쓰고 바뀐 후의 품사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 설명할 것.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 씨도 혼약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나았다. 최 씨는 이런 시를 지었다.

惡因緣是好因緣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어
盟語終須到底圓 우리의 언약 이루어졌네
共輓鹿車何日是 함께 사슴 수레 탈 날 그 언제일까
倩人扶起理花鈿 부축 받고 일어나 꽃 비녀를 꽂아 보네

드디어 좋은 날을 택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다. 함께 산 뒤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서로를 손님 대하듯이 온 정성을 다했다.

[중략 줄거리]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씨는 죽고, 이생(李生)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생은 발길을 돌려 최 씨의 집으로 갔다. 황량한 집에 쥐가 짹짹 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슬픔을 가눌 수 없어 작은 정자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날이 저물도록 이생은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었다. 멍하니 예전에 최 씨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노라니 한바탕 꿈을 꾸 듯싶었다.

어느덧 밤 10시 무렵이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보름 비추었다. 문득 행랑 아래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 씨였다.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목 놓아 통곡하더니, 이윽고 마음을 토로하였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나)

[전략 줄거리] 수성궁 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깬 유영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난다. 운영과 김 진사는 그들의 지난 이야기를 한다.

이래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운영과 김 진사는 마주 보고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종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염없이 비통해 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 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몰락하여 궁궐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들의 꽃과 뜨락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는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 (중략) …

운영이 이어서 읊조렸다.

故宮花柳帶新春 옛 궁궐의 꽃과 버드나무는 새봄을 띠었고
千載豪華入夢頻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今夕來遊尋舊跡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不禁珠淚自沾巾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운영전」 -

9. (나)를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바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작성 방법>

- 김 진사가 현재 서글퍼하는 이유를 [A]에서 찾아 서술할 것.
- (나)의 서사 구조를 고려할 때 ㉠, ㉡의 서사적 기능을 각각 서술하고, ㉡이 유영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서술할 것.

10. (가), (나)를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보 기>

(가)는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나)는 (가)에서의 특징도 나타나지만, 애정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복잡한 인간관계의 설정, 악인형 인물의 등장, ㉠ 적강 모티프의 사용, 작품 분량의 확대, 현실성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작성 방법>

-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을 2가지 쓰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서술할 것.
- (나)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 기능을 서술할 것.

11. (가)는 교사가 작성한 평가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쓴 글이다. 교사의 평가 계획에서 보완할 점과 학생이 쓴 글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평가 계획

I. 평가 내용

1. 학습 목표: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2. 주요 학습 내용
 - ①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 ②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 ③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 ④ 통일성을 유지하며 글을 쓰려는 태도 갖기

II. 평가 요소별 평가 방법

평가 요소	평가 도구	평가 주체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선택형 평가	교사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분석적 평가	교사, 동료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분석적 평가	교사, 동료
글쓰기 태도	관찰 평가	교사

III. 평가 중점 및 유의점

1. 지식, 기능,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2. 완성된 글뿐 아니라 쓰기 과정도 함께 평가한다.
3. 자기 평가뿐 아니라 상호 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학습 내용, 평가 요소와 일치하도록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다.

IV. '분석적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표

평가 범주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내용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용이 새롭고 풍부한가?					
조직	글의 구조가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문단 수준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표현	어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어휘 선정 및 사용이 적절한가?					
	장르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 학생이 쓴 글

사물에 쌓인 기억

- ①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한국 시장이 마케팅의 시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고급 소비재를 수용하는 속도가 빨라서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제품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② 신문 기사는 중립적이었지만, 독자로서 이 글을 읽는 내 마음은 이중적이었다. 우리가 줄곧 외쳐 온 세계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증거를 거기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고 세계의 소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흐뭇했다.
- ③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 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뜻도 된다. 학기 초나 생일 때 요란을 떨며 샀던 소중한 물건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한다. 물건들 속에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 쌓이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 ④ 이런 슬픔이 유행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만나 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삭막해진다. 이렇게 삶이 충만함을 잃으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생산된 새로운 물건과 유행에 집착하게 된다.
- 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깊은 곳에 그 기억을 간직할 때에만 사물도 그 깊은 내면을 열어 보일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는 나와 세상을 함께 길들이려는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오늘은 내 옆의 오래된 물건에 눈을 돌려 보자. 그리고 그 물건에 쌓인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눈으로 바라보자.

<작성 방법>

- 'I. 평가 내용' 중 '2. 주요 학습 내용'의 ③과 'III. 평가 중점 및 유의점'의 '4'에 근거하여 교사가 작성한 채점 기준표의 '조직'에서 보완할 점을 서술할 것(단, '통일성의 개념'과 '통일성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쓸 것).
- (나)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구성하되, 문단 ②가 통일성이 부족한 이유를 지적하고, 수정 방안을 서술할 것(단, 부족한 이유와 수정 방안을 서술할 때는 문단 ②의 내용을 인용할 것).

<수고하셨습니다.>